취약계층 '8VSB' 디지털방송 대안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 가능… 미래부, 아날로그 상품 종료 '방송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

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 임박…취약계층 '8VSB' 대안

케이블방송의 아날로그 시대가 막을 내릴 시점이 다가오면서 취약 계층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디지털방송을 제공할 수 있는 8VSB(8-Vestigial Side Band) 변조방식이 각광받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케이블방송의 아날로그 상품 종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5일 미래부에 따르면 케이블방송 이용자 가운데 아날로그 상품 가입자는 지난해 6월 기준 367만명에 달한다. 이는 케이블방송 전체 이용자 1485만명 중 25%에 해당한다.

이들 중에는 저소득층이나 노인층 등도 상당하다. 문제는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할 경우 이들에게 만만치 않은 비용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한 케이블방송을 예로 들면 아날로그 상품이 채널수에 따라 월 4400원~1만1000원 수준이지만,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하면 1년 약정시 셋톱박스 대여료 포함 2만900원~3만1900원까지 요금이 훌쩍 뛰어오른다.

이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서비스로 8VSB 변조방식이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채널당 6㎒ 대역폭을 사용해 아날로그 케이블방송에도 별도의 디지털셋톱박스 없이 고화질(HD) 방송을 보낼 수 있는 기술이다.

이 방식은 지상파가 디지털 방송에 채택하고 있는 전송 방식이다. 아날로그 가입자들에게 지상파와 동등한 화질의 방송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무엇보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기존 아날로그 요금으로 디지털방송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 방식으로 디지털방송을 보기 위해 부착하는 'D to A 컨버터' 설치 비용은 케이블방송사들이 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날로그에서 8VSB로 전환하는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2015년 6월 60만4000명에서 2016년 6월 257만7000명으로 기하급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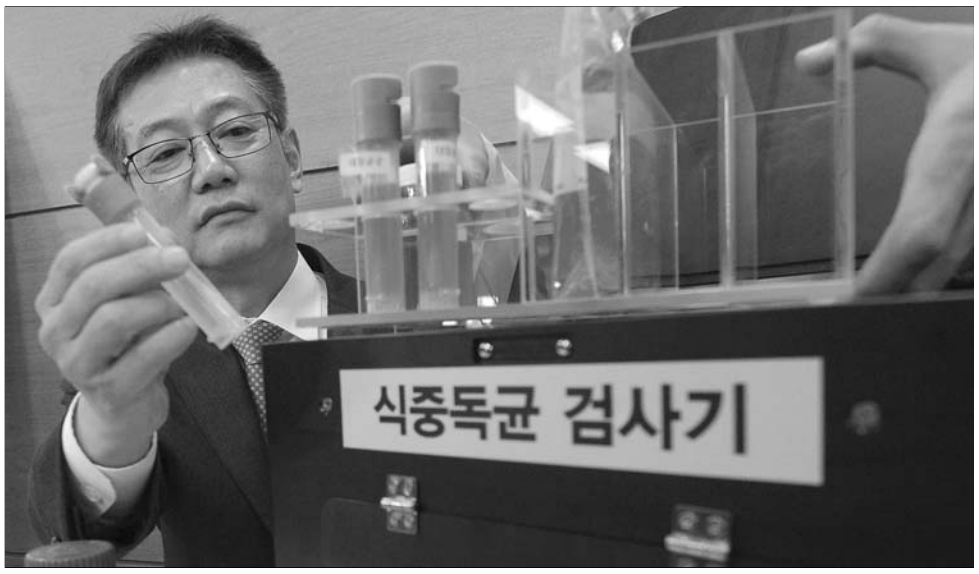
단점이라면 IPTV와 달리 VOD(주문형비디오)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일단, 케이블방송 업계는 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이 2012년 완료된 만큼 케이블 아날로그 상품도 종료하길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부는 시청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호대책 없이 일부 상품만을 종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 시청자 보호대책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승인제)를 신설했다.

아울러 아날로그 종료를 위한 절차, 방법, 법적근거 마련 등을 담은 '아날로그 종료 지원계획(가제)'을 별도로 마련해 학계, 업계, 시청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미래부와 업계는 케이블방송의 아날로그 종료 시점을 오는 2020년 정도로 내다보고 있다. /뉴시스



빠르고 간편한 대장균 검출기 개발 김욱한 농촌진흥청 농산물안전성부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샐러드바, 구내식당, 학교급식소 등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위생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대장균군 · 대장균 간편 검출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히고 있다.

금감원, '온라인 금융교육' 도입

금융감독원은 금융교육 프로그램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금융교육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과 유관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금융교육 체험 프로그램, 교육 콘텐츠 등을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금융교육 한곳에'를 신설했다. 금융권이 제작한 교육동영상, 학습게임, 체험프로그램 등의 콘텐츠도 게재한다.

이용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금융교육 과정도 도입했다.

학습수준 테스트 결과에 따른 수준별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내용을 점검하는 평가를 통과하면 온라인 교육 이수 수료증도 발급한다.

금융교육센터 이용자의 사용 빈도를 반영해 메뉴를 재구성하고, 최신 웹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을 적용해 방문자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뉴시스

한국은행 "통화 정책 완화 기조 유지"

"물가상승 압력 크지 않아"

한국은행은 15일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해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앞으로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접근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 안정에 유의해 운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이 과정에서 대외적 여건의 불확실성과 그 영향,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이,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은은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1.25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성장세 둔화가 우려됐으나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데다 물가 오름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노믹스, 미국의 금리인상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표시했다.

한은은 "수출과 설비투자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심리 위축 등으로 민간 소비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4분기 들어 성장세가 다소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 국내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국내 경제주체의 소비 및 투자심리 향방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잠재해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한은은 미국 대선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처해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시장 금리 급등에 대응해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국내외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시장 급변시 비상점검체제를 즉각 가동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며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 ·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지난달 'ICT 수출' 호조… 휴대폰은 고전

반도체 · 디스플레이 · 컴퓨터 및 주변기기 크게 증가… 휴대폰은 36.4% 하락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이 반도체 시장의 호조로 4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휴대폰 시장은 중국의 역습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ICT 수출액은 138억3000만달러, 수입 77억9000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ICT 수출액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이 크게 늘면서 전년 동월대비 16.7% 증가했다. 2013년 5월 이후 44개월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전년 같은기간대비 메모리(40억9000만달러 · 64.6%↑)와 시스템(18억4000만달러 · 16.0%↑)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급증해 사상 최대의 월간 수출실적 64억1000만달러(41.6%↑)을 기록했다.

디스플레이는 월간 수출실적이 23억2000만달러로 2013년 4월 이후 최대 증가율 15.6%를 기록했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6억3000만달러 · 7.9%↑)도 SSD 수출 호조에 힘입어 8개월 연속 증가했다.

다만, 휴대폰은 수출실적이 36.4% 하락한 12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휴대폰 완제품의 경우 스마트폰 시장 성장 둔화, 중국 업체의 프리미엄 시장 진출 등 글로벌 경쟁 심화, 신규 전략폰 출시 지연에 따른 대기수요 등으로 감소했다.

휴대폰 부분품의 경우도 중국 · 베트남 · 인도 등 주요국 수출 부진 심화로 수출이 줄었다.

우리나라 휴대폰 수출 증감률은 지난해 9월 전년동월 대비 33.8%↓, 10월 33.1%↓, 11월 27.4%↓, 12월 20.1%↓로 떨어지고 있다.

반면 중국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SA)은 2013년 25.6%, 2014년 33.9%, 2015년 34.7%, 2016년 39.9%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중국(75억5000만달러 · 17.9%↑), 미국(12억1000만달러 · 3.3%↑), 베트남(13억2000만달러 · 31.5%↑), 유럽연합(8억9000만달러 · 18.4%↑) 등 주요국을 비롯해 중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수출이 증가했다.

수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 대비 14.8% 증가했다. 휴대폰의 경우 아이폰 등 해외 업체 제품 증가로 완제품(3억9000만달러 · 72.9%↑)과 부분품(5억달러 · 21.8%↑) 수입이 늘어나며 3개월 연속 증가했다.

ICT수지는 60억5000만달러 흑자로 전체 수지 흑자(32억달러)에 기여했다. 중국(45억2000만달러), 미국(5억5000만달러), EU(3억4000만달러) 등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뉴시스

신한은행, 24시간 모바일 계좌 개설 서비스

신한은행은 모바일 앱인 신한S뱅크에서 24시간 신규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확인, 영상 통화 또는 기존 계좌 인증 단계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기존 거래가 없었던 고객도 본인명의 휴대폰과 신분증만 있으면 지점에 들리지 않고 개설이 가능하다. 기존 계좌인증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하면 은행 업무시간에 상관없이 24시간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향후 카드 재발급, 증권계좌 신규 등 다양한 업무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